

함평엑스포공원으로 여름피서 떠나볼까

물놀이장 14일부터 한 달간 운영 VR체험장·자동차극장 등도 인기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화대전’의 주 행사장인 함평엑스포공원이 여름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를 무더위를 날려 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개장한다.

물놀이장은 2400㎡ 부지에 파도풀, 어린이풀, 유아풀, 슬라이드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1일 최대 2000여명 수용이 가능하며 100% 수돗물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로, 매년 입장객 대기 줄이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뜨거운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무료 그늘막, 쉼터, 피크닉 테이블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달음식 반입도 가능하다.

물놀이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4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물놀이장 인근에는 휴식과 힐링의 도보길인 ‘함평천지길’이 있다.

함평천지길에는 숲으로 형성된 ‘화양근린공원’과 생태습지로 조성된 ‘함평천생태습지’, 그리고 도시공원 형태로 잘 가꾸어진 ‘엑스포공원’을 연결하는 6km의 도보길이다.

약 2시간여 도보로 수산봉 숲속 둘레길, 낙우송길, 사색정원, 사랑정원, 장미정원, 소나무길, 등나무길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함평천지길에는 꽃과 나무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곳곳의 테마공원에 포토존과 조형물이 마련돼 있어 인증샷을 남기기 좋은 명소로도 꼽히



함평엑스포공원이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14일 개장하는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고 있다. 실내 공간에서 짜릿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VR체험장’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지난해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개장한 VR체험장에서는 롤러코스터, 해저탐험 등 VR(가상현실) 12종, 스크린사격, 축구 등 AR(증강현실) 2종을 체험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함평자동차극장’도 명소다. 지난 2021년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1만1000㎡ 부지에 문을 연 자동차극장은 2개 상영관(나비관·황금박쥐관)을 운영 중이다.

초대형 스크린(가로 23m·세로 15m) 2대에 매주 신작 영화를 상영해 가족·친구·연인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극장을 이용하며 내마음대로 골라먹는 재미도 새롭다. 영화 시작 전 음식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 감상과 동시에 자유롭게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 극장만의 매력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엑스포공원 일원에 커지는 ‘야간경관 조명’도 눈길을 끈다. 엑스포공원에는 경관조명 12종 4424점과 야간경관 조명물 31종이 설치돼 있어, 색색의 빛나는 조명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야간경관 조명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다.

정제원 함평군 관광정책실장은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물놀이도 하고 영화감상도 하면서 올해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시길 바란다”며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함평 엑스포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전입 세대 주거비 1320만원 지급

최장 5년까지... 월 단위로 지원

장흥군이 장흥에 전입하는 세대를 위한 ‘희망주거비’로 최고 13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급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뒀다고 올해 3월28일 이후 장흥군에 전입한 세대이다. 이 사업은 기존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마련했다.

사업비는 모두 군비로 충당한다. 희망주거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

지 10만원의 월 주거비(월세·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최장 5년까지 총 1320만원의 주거비를 받게 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확정일자 6개월 미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거정책사업 참여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희망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장흥군이 유일하다”며 “장흥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초기 생활안정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경찰 교통사고 줄이기 합동 캠페인



화순경찰이 최근 화순읍 국민은행교차로와 금호아파트사거리, 화순우체국사거리에서 읍내지구대와 역전파출소, 전남청3기동대와 합동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순경찰서 제공>

화순 광덕 문화광장에 365일 무인 스마트도서관 개관

문화체육부 공모... 500여권 비치

화순 광덕 문화광장에 365일 무인으로 운영하는 화순 열린 스마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이 도서관은 화순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됐다. 스마트도서관에는 5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이용자가 화순열린도서관 회원증이나 모바일 회원증을 인식시키고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면 내부의 로봇 팔이 해당 도서를 꺼내주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화순열린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1인당 2권을 최대 1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스 내에는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뿐만 아니라 화순열린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 반납기도 설치돼, 인근 주민들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편리하게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열린스마트도서관 전경. <화순군제공>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책 읽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했다”라며 “등·하교 길이나 출퇴근길에 편리하게 이용

하여 화순군에 책 읽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 시내버스 정상 운행... 노조 파업 철회

나주교통 노사 임금 협상 타결

나주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주)나주교통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노조가 잠정 유보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교통 노사는 전날 임금 재협상을 통해 월 기본급 1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나주교통 하나로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미뤘던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친 사측과의 임금 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6일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쳐 10일~11일 이틀간 파업을 통한 시내버스 노선 운행 중단을 예고했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5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0만원 인상안을 제시하며 큰 견제자를 보였다.

이 외에도 노사가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10일 예정됐던 파업은 미뤄졌다.

나주시는 지난 주말 시내버스 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나주교통 노사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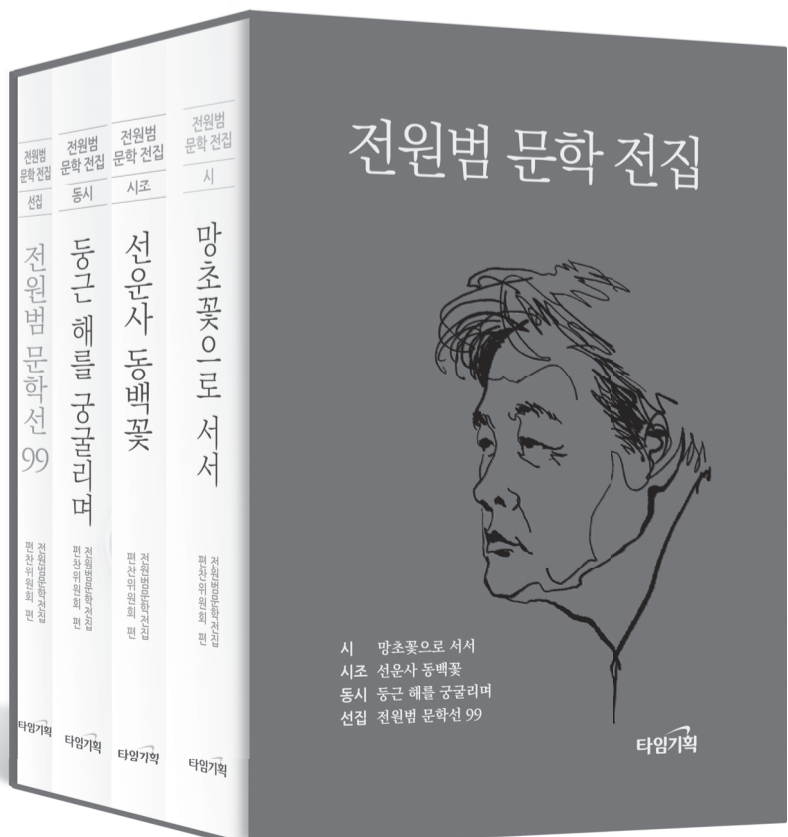


나주 시내버스 운행 모습. <나주시 제공>

나서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됐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수요자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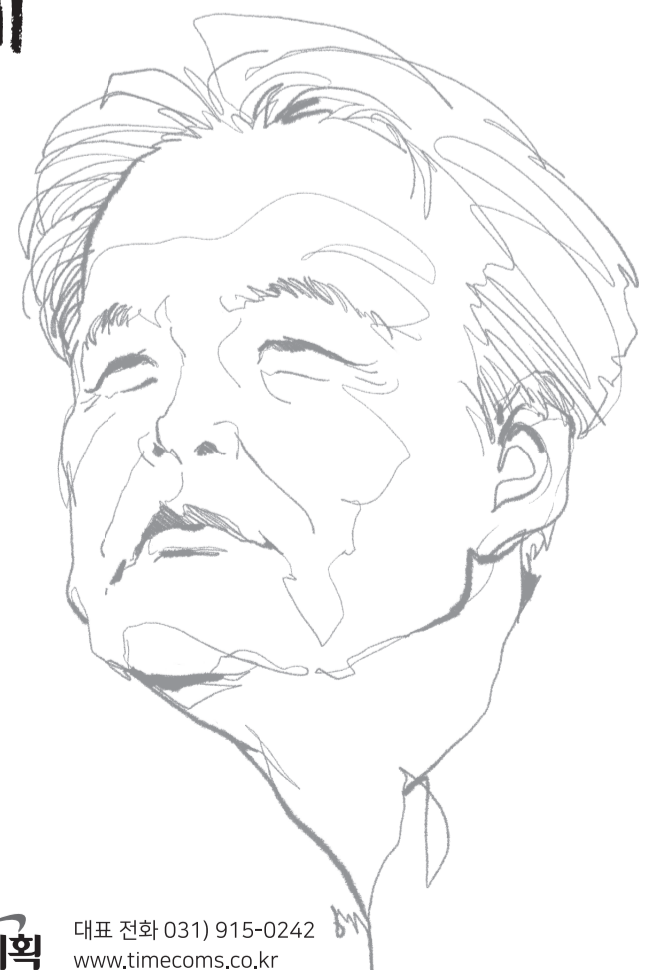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